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와 포도나무, 돌에게는 각각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 즉 신들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심란하게 하도록 용납하지 말고, 이성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 ①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 ②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 ③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념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다.
- ④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힘쓴다.
- 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유일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추구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간(世間)에서의 생겨남[集]을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에 없음은 있을 수 없고, 세간에서의 사라짐[滅]을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에 있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양극단[二邊]을 떠난 중도(中道)이며 연기(緣起)의 진리이다.

< 보 기 >

- ㄱ.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세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 ㄴ. 만물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 ㄷ.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
- ㄹ.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야 무명(無明)에 이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람은 누구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갖고 있다. 어려서 자신의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커서 자신의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을: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악(惡)한 본성을 갖고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음식을 양보하고, 아우가 형 대신 일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난다.

- ① 갑: 대인과 소인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② 갑: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 ③ 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인위적 노력[僞]을 통해 가능하다.
- ④ 을: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갑, 을: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예(禮)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이 섬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창고에서 자유롭게 가져오므로 결핍의 두려움이 없다. 집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교환한다. 노동 외의 여가 시간은 자기 계발을 위해 활용한다. 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노동자는 분업화된 노동의 연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생산물의 분배는 공동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나)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① 갑: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기에 사회 규범이 없습니다.
- ② 갑: 물질적 재화가 풍족하지만 사유 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을: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 수단을 소유합니다.
- ④ 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연대하여 노동 소외가 사라집니다.
- ⑤ 갑, 을: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만 분배받습니다.

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이성은 의지를 지도할 때 감정에 맞설 수 없고 이성만으로는 의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을: 이성은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다.
(나)	

< 보 기 >

- ㄱ. A: 선악의 구별은 공감에 의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 ㄴ. B: 이성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ㄷ. B: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의지와 결과 모두에 근거한다.
- ㄹ. C: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돌보며 진리를 찾아야 한다. 진리를 탐구할 때에는 이성을 사용하고 의미가 보편적으로 정의된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사상가는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가 곧 그 사람에게 진리라고 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 사상가는 ㉠

- 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덕은 지식이 아니며 가르쳐질 수 없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이성적 탐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사회적 성공에 유용한 것을 진리로 보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치는 것은 세상의 해로움이다.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아끼고 남의 영토를 자기 영토처럼 아끼는 것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交相利]이다.
 을: 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제적 삶을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축소시키는 외적 영향력이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에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나아가는 인과적 흐름을 갖는다.

- ① 갑: 어떠한 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갑: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도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사회 복지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도 폭력이 될 수 있다.
- ④ 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는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없다.
- ⑤ 갑, 을: 폭력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마음은 모든 이치[理]를 감싸며 모든 사물에 두루 작용한다. 이치가 마음속에 깃들여 있으므로 마음과 이치는 하나라고 한다.
 ○ 만물이 생성될 때 이치를 품부받은 후에야 성(性)이 생긴다. 개개의 사물은 비록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치는 모두 천리(天理)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 보 기 >
 ㄱ. 인욕(人欲)을 제거하고 본연의 성을 보존해야 한다.
 ㄴ. 경(敬)으로 마음을 주재하는 도덕 수양에 힘써야 한다.
 ㄷ. 극진한 앎을 위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ㄹ. 이치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본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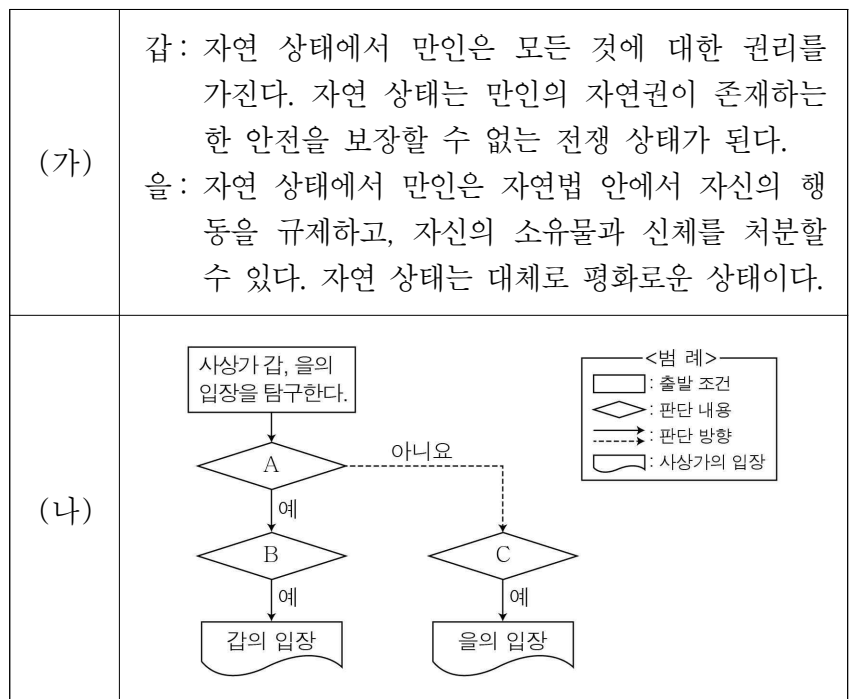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9.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리의 빛에 의해 인간은 조명받고 그 빛을 향유한다. 신은 곧 진리이다. 신국의 시민들은 진리를 군주로, 사랑을 법도로, 영원을 척도로 삼아 살아간다.
 을: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 나는 이런 의심을 하려면 의심하고 있는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철학의 제1 원리를 발견했다.
 병: 진리는 유용하기에 참이라는 말과 진리는 참이기에 유용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관념은 내재하는 속성 때문이 아니라 실현되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

- ① 갑은 지혜라는 덕은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본다.
- ② 을은 연역적 방법을 학문의 주된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지식과 도덕을 실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본다.
- ④ 을은 병과 달리 감각적 경험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고 본다.
- ⑤ 병은 갑과 달리 형이상학적 관념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

1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인가?
 ㄴ. B: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한가?
 ㄷ. C: 사회 계약 이전에도 개인은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가?
 ㄹ. C: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를 갖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영혼은 이성적 부분, 기개적 부분, 욕구적 부분으로 나뉜다. 지혜는 이성적 부분의 덕이고 용기는 기개적 부분의 덕이다. 절제는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이다.
 을: 영혼은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뉜다.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등은 이성적 부분의 덕이고, 용기와 절제 등은 비이성적 부분의 덕이다.

< 보 기 >
 ㄱ. 갑: 절제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ㄴ. 을: 실천적 지혜는 교육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길러진다.
 ㄷ. 갑, 을: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ㄹ. 갑, 을: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율 조정과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효 수요의 창출,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하면 노예의 길로 빠지게 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여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갑: 국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철회해야 한다.
- ② 갑: 국가는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해 공공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을: 국가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을: 국가는 재정 지출을 증대하여 경제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는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1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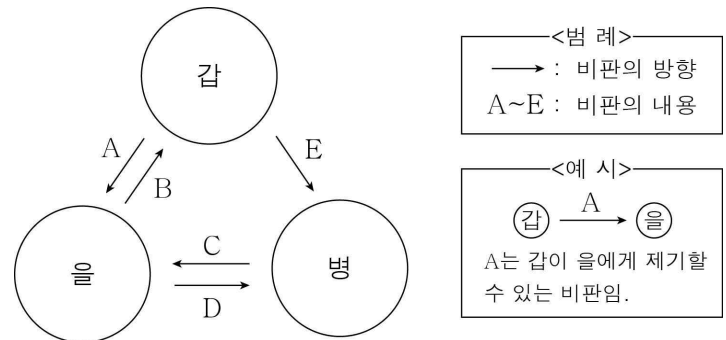
갑: 불안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불안은 현존재에게 혼자 있음의 섬뜩함을 드러내 주며,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향해 미리 앞서 달려가 봄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존재 가능성을 획득하게 한다.
 을: 불안은 무(無) 앞에서의 불안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본질에 앞서며 본질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자기의 고유한 미래가 무(無)의 방식으로 불확실하게 존재하기에 불안을 느낀다.

- ① 갑: 죽음을 직시하면 현존재에서 비본래적 자기로 도약한다.
- ② 갑: 다수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때 불안은 극복된다.
- ③ 을: 모든 인간은 실현해야 할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④ 을: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 ⑤ 갑, 을: 인간은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14~15] 갑은 중국 유교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性)은 마음의 본체이고 천리(天理)이며 양지(良知)이다. 인의예지는 성이 이미 발한 것이며, 측은·수오·사양·시비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양지 외에 따로 지(知)가 없으니 치양지(致良知)는 학문의 근본이다.
 을: 성은 곧 이(理)이다. 측은·수오·사양·시비는 각각 인의예지라는 성에서 발한 것이니 주리(主理)이며, 희노애구애오욕은 외물이 형기(形氣)에 닿아 겉으로 나온 것이니 주기(主氣)이다.
 병: 성에는 인의예지신 다섯 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것 외에는 성이 없다. 정(情)에는 희노애구애오욕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니 측은·수오·사양·시비도 이 일곱 가지 정에 포함된다.

14.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私欲]에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② B: 마음은 곧 성이고 이이며 도덕 실천을 주재함을 간과한다.
- ③ C: 기(氣)가 발하는 근거는 이의 동정(動靜)임을 간과한다.
- ④ D: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성임을 간과한다.
- ⑤ E: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됨을 간과한다.

1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과 병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 성인(聖人)이 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늘[天]을 이(理)로, 인(仁)을 만물을 낳는 이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늘은 만물을 주재하는 상제(上帝)이며, 인은 사람의 공(功)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 ①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③ 인은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嗜好)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權]이 주어짐을 모르고 있다.
- ⑤ 형구의 기호는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는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행운과 불운에 대해 담담하게 견뎌내야 한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는 결론이 삼각형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듯이,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 ① 신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신의 양태이다.
- ② 정념의 원인을 이해하면 정념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③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면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 ⑤ 신은 자연 밖에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17.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하고, 힘껏 도를 지켜야 합니다. 군자는 도에 뜻을 두고 인(仁)에 의지합니다.

배움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쌓아 갑니다. 그러나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 냅니다. 덜어 내고 덜어 내어 무위(無爲)에 이르게 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갑



을

- ① 갑: 군주는 덕과 예법에 근거하여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② 갑: 명분[名]을 버리고 충서(忠恕)의 도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을: 현자를 숭상하고 지식을 넓혀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을: 잃어버린 도를 되찾기 위해 시비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 ⑤ 갑, 을: 인의(仁義)를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누구도 나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 타율성은 외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외부의 노예가 되는 경향이다. 자유란 단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 ① 갑: 자유인은 법의 지배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② 갑: 간섭받지 않는 노예도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을: 불간섭의 영역을 넓혀야 개인의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
- ④ 을: '~를 향한 자유'가 '~로부터의 자유'보다 더욱 중요하다.
- ⑤ 갑, 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양·연구·취사(取捨)의 삼학(三學)으로써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느니라.

을: 이제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신명(神明)을 조화하며 상생의 도로써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병: 어찌 사람만이 홀로 한울님을 모셨다 이르리오. 천지 만물이 다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저 새소리도 또한 시천주(侍天主)의 소리니라.

- ① 갑: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을: 원한을 풀고 작은 은혜에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병: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 ④ 갑, 을: 바른 수행을 위해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해야 한다.
- ⑤ 을, 병: 이상 세계를 현세에서 실현하도록 힘써야 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심신의 고통이 부재한 상태이며 모든 고통이 제거될 때 최대치에 도달하게 된다.

을: 행복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고통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고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 보 기 >

- ㄱ. 행복해지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하는가?
- ㄴ. 쾌락은 추구해야 할 선이고,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인가?
- ㄷ. 행복한 삶과 도덕적 삶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ㄹ.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